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8호

2025.05.23 금 18: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스포츠시민단체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언

유승민 회장 "다양성 담아내 후보자 책임감 높이려는 게 목표"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선거제도 개혁 신호탄

이동철 연합뉴스기자

모집요강에 '수영복에 소속 표시 금지'...法 "수영모도 포함해 해석해야"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법원 "불합격 정당"

이미령 연합뉴스기자

패럴림픽 난민팀이 전하는 평화와 인권 메시지

패럴림픽, 장애인이자 난민 그들을 알리다

이현욱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제주시 체육회

체육계 비리, 무관심 속 방치

박주연 기자 제주MBC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 시민단체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2025. 05.23. ㄹ 18: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발제 1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발제 2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3 서정화 (민변 스포츠팀)

| 종합토론 |

허정훈 (중앙대, 체육시민연대 자문위원)

장재옥 (중앙대)

이병호 (대한학교체육회 상임위원)

정진아 (민변 스포츠팀)

이대택 (국민대학교,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문석** 의원실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도입 추진... 선거제도 개혁 신호탄

"대한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성을 담아내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활동에 책임감을 높이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체육회장 선거제도 변화의 혁신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16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월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의 53.8%인 1천209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체육회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게 추진 중인 선거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지난 1월 14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4월 출범시킨 체육단체 선도제도개선위원장에 국내 최고의 '선거 전문가'인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선임했고, 이 위원회는 한 달여 활동을 거쳐 투표권을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개선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근거해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대원칙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 개혁 방안으로는 '파격적'이다.

실제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천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대년 위원장도 앞선 인터뷰에서 "10년 전 설계돼 3차례 선거를 치른 현재의 방식이 더 많은 체육인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면서 다른 단체에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를 남기겠다며 혁신을 예고했다.

유 회장은 "축구 등 일부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등록 경기인 수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제도개선위의 추진 방향에는 힘을 실어줬다.

선거제도개선위는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인등록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선거운영위원 주관 후보자 정책토론회 '의무' 개최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선거공보물 우편 발송 대신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앞으로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손질하는 한편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논의를 거쳐 9, 10월 중에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승민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선거 제도 개선안은 '완성형'이 아니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체대 실기고사에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 법원 "불합격 정당"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B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B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 착용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수험생 2명도 마크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는데 불합격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자신의 소속을 나타낸 표시가 아니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기고사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해당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패럴림픽, 장애인이자 난민 그들을 알리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나라를 잃었거나 혹은 고국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이 한팀을 이뤄 출전한다. 패럴림픽은 IPC 회원국 자격을 갖춰야 출전할 수 있다. IPC 회원국은 총 182개국으로 작년 파리 대회에는 회원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팀(RPT)이 이름을 걸고 나와 총 183개국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현재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간 갈등이나 종교, 이념 등의 문제로 국가전이나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들이 난민 자격으로 패럴림픽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난민과는 별개로 자국 국기를 가슴에 단 선수들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 했다.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사국인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 조지아 등의 선수들은 IOC와 IPC의 제제를 받아 국가 소속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국제 종합대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두고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선수들이 인권 탄압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국제 사회가 공조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러시아 주변국과는 별개로 아프카니스탄처럼 내전이 있거나 종교분쟁이 일어나 국경을 탈출하는 민족의 선수들이 대부분 난민선수들인데, 이들은 국제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그 지위가 보장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자신의 조국을 대표해서 나오지 못하고 난민 자격으로 패럴림픽에 나온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이어 나간다. 때로는 국제경기연맹이 이들의 선수생활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기도 한다.

일례로 도쿄 패럴림픽 직전에 아프카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면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던 중 패럴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태권도와 육상 선수가 탈출하지 못해 참가가 무산될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여자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호주인의 탈출 비행기 탑승에 성공했고, 유럽 대륙을 거쳐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 이후에야 일본 땅을 밟고 자신의 예정된 경기 스케줄을 소화한 일화가 있었다.

탈레반의 보복이 염려됐던 쿠다다디는 극비리에 이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국인 태권도사범들이 일사불란 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 태권도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아프카니스탄 선수 자티아 쿠다다디를 응원하고 있다. ©IPC
마치 영화 대탈주를 보는듯한 느낌 그 자체인데, 가슴 졸이며 아프카니스탄을 무사히 탈출한 쿠다다디의 태권도 경기는 어땠을까?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개최국 일본이 마련해준 경기복을 급하게 입고 아프카니스탄 국기를 가슴에 달고 사력을 다해 경기를 했지만, 첫 경기에서 지고 이후 더 올라가지 못했다. 쿠다다디는 아프카니스탄 출신으로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한 여성선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패럴림픽 정신의 산증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다음 장 계속

도쿄 대회 이후 그녀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며 이후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따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프랑스가 패럴림픽 개최국으로서 메달 욕심을 내는 상황이라 쿠다다디에게 프랑스인으로 대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난민팀을 고수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난민 상황을 알려야 조국 아프카니스탄에서 탄압받는 국민들이 세계에 알려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제뉴스에서도 종종 보듯이 보트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온 난민들이 그 지위를 얻기위해 목숨을 걸고, 또 실제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들을 막기위해 국경이 봉쇄되고 있다. 그런데 쿠다다디는 패럴림픽 참가 자격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자신이 난민임을 전세계에 다시 알렸다.

쿠다다디 외에도 파리 패럴림픽에서 난민팀은 8명의 선수와 1명의 가이드 러너가 6개 종목(육상, 역도,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 펜싱)에 참가했는데, 난민 패럴림픽 대표팀의 역사적인 첫 메달을 쿠다다디가 땀다. 쿠다다디가 메달 획득 후 환호하는 세레머니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아프카니스탄 출신 첫 여성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가 2024년 파리 패럴림픽대회 장애인태권도에서 동메달을 확정지은 후 코치와 기뻐하고 있다. ©IPC
여자 장애인 태권도 K44-47kg급에 출전한 쿠다다디와 남자 육상(T11) 400m에 출전한 ‘기욤 주니어 아탕가나’는 난민팀 사상 첫 메달(동메달)을 획득하며 이 메달을 전 세계 난민들에게 바쳤다.

난민 선수단의 또다른 동메달리스트이자 개회식 기수이기도 했던 카메룬 출신 ‘기욤 주니어 아탕가나’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시력을 잃어 꿈을 이루지 못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카메룬 선수로 출전해 4위를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으로 이주한 후 난민팀에 뽑혀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시상대 위에 올랐다.

아탕가나는 "난민팀에 선발되고자 최선을 다했고, 기회를 얻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기쁘다"고 밝혔다. 아탕가나와 함께 달린 가이드러너(비장애인) 도나드 은딤 니암주아 역시 카메룬 출신 난민이라 그들의 질주 자체가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난민팀으로 시각장애 육상에 출전한 아탕가나는 카메룬 출신으로 같은 난민팀 소속인 비장애인 선수가 가이드러너를 했다. ©IPC

강제이주 등을 겪은 장애인들은 특히 불편부당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들을 돕는 것은 유엔난민기구(UNHCR)인데, 이 기구가 IPC,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피난처재단(Olympic Refugee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맺고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한 난민 선수들을 지원해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1,800만 명의 장애인이 강제로 자신의 조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패럴림픽 난민팀의 활약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용기와 응원이 되었을 것이다.

신체적인 불편함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난민 선수단은 패럴림픽으로 두 배의 감동을 안겨 주었다. 파리 대회는 난민 패럴림픽 대표팀에게 유산을 남겼고, 경기력과 기록 면에서 모두 주목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4년 여름은 전 세계 난민 선수들에게 꿈의 여름이었으며,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패럴림픽 그 이후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했다.

2021년 아프카니스탄을 탈출한 후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쿠다다디는“태권도는 내 삶에 있어서 마법과도 같다. 나를 구해줬고, 태권도가 없었다면 누구도 나를 몰랐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장애인스포츠가 마법처럼 인류평화와 인권을 지켜낸 것이다.

체육계 비리, 무관심 속 방치

◀ 앵커 ▶

이번 서귀포시의 한 체육단체 회장의 성추행 의혹은 물론 지난해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내 갑질 등 체육계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육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일을 시키고, 주말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돼 물러났던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 협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중에 부당 해고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비리가 잇따르는 이유 중 하나로는 간선제라는 체육회의 특수한 선출 구조가 꼽힙니다. 종목단체 회장들이나 클럽 대표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다보니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사업계획과 예산, 사무국 운영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갖는 이사는 물론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선출직이다 보니 해임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비리와 인권 침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제3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제주도가 잇따르는 사건에 감독기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S Y N ▶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지난해 2월 26일)

"(체육인) 인권 관련해서 챙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제주도는 예산 편성은 커녕 구체적인 계획 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I N T ▶ 제주도 관계자 (음성변조)

"작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몇 번 갔다 왔었는데 아직 좀 미온적이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들의 대응은 제주도와 확연히 다릅니다. 경기도는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천22년 전국 최초로 스포츠 인권센터를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과 광주, 경남 등 5곳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비리가 잇따르는데도 제주도가 손을 놓은채 방치하면서 체육계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모른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1·1·1 스포츠 프로젝트' 수업 참관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286>

체육공단,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9_0003181240

대전교육청,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금메달 목표200% 초과 달성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884>

충남장애인체육대회 D-10일...개회식장에 안전요원 300명 배치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9056100063?input=1195m>

'체육응도' 화성특례시, 경기도체육대회 3년 연속 종합우승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49686642170560>

포천시, 경기도체육대회 2부 '종합우승'...6년만에 왕좌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51915163490252>

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폭언 등'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요청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9_0003180964

김해시,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내달 '첫 삽'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51911223826398>

과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전면개방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68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